

•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하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저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알게 해주시고,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기쁨으로 활기차게 찬양합니다.**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하셔도 좋습니다)

추천 찬양: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 **힘있게 성경을 읽읍시다.**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2:13-17

• **읽은 후에 온 가족이 함께 다음과 같은 주제로 대화를 나누어 봅시다.**

1) 집에 있는 것들을 둘러보면서 각 물건이 누구의 것인지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각 사람(아빠, 엄마, 아들 딸)은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나누어 봅시다.

2) 각자 자신의 삶은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누어 봅시다.

• **본문 말씀 나눔** (가장 혹은 예배 인도자가 대표로 읽으세요.)

우리는 ‘소유’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과 타인이 가진 것을 비교하고 타인이 가진 것을 갖기 위해 나는 뭘 해야 하는지, 그것까지 가지면 뭘 더 가질 수 있는지 끊임없이 ‘소유’의 늪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소유’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14절의 질문이었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꾀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이 왜 난처한 질문이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인두세’ 라는 세금을 로마에 내고 있었는데, 세금을 낼 때에는 데나리온이라는 로마의 화폐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 동전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 황제’라는 글귀가 적혀있었습니다. 이 화폐는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인정하는 화폐이며 이 세금을 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상 숭배에 응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4절과 연결해서 생각했을 때 만일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써의 자격이 박탈되며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선 그를 하나님의 신성과 율법을 모독하는 죄목을 씌우기 적절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는 반로마적 정치범으로 몰리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대답을 하시면서 위기를 넘어가십니다. 16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 화폐가 누구의 것이냐 물으십니다.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를 신성시하는 글귀를 가진 동전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그에게 돌려주라는 말은 당연한 것임과 동시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2.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예수님께서 단순히 바리새인들의 답변을 지혜롭게 피해가시는 데에서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나아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17절)”고 말씀하십니다. 테나리온과 비교하여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자신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이며 이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제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글귀는 어디에 적혀 있었을까요? 유대인들 자신들의 마음에 적혀 있었고, 실제로 그들은 성경 말씀을 듣고 다니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형상을 가진 테나리온을 가이사에게 돌려줘야 하듯,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너희가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모두 놀랐습니다.

3. 믿음과 제자도란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주요한 주제인 ‘제자도’는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믿음이란 인지적 동의가 아닌 모든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는 ‘인생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 비록 망가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음을 믿는 사람들이며,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여 내 마음에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작될 한 주를 내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누고 고민하는 남서울의 가정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 함께 기도제목을 간단히 나누고 서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돌아가면서 혹은 대표자가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 하세요.